



공영방송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 KBS <뉴스 9>와 BBC <10시뉴스>의 비교 분석

오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MBC 기자
김경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Anonymous Sources in Public Broadcasting News A Comparative Analysis of KBS <News 9> and BBC <News at 10>

Hae Jung Oh*

(Doctoral Student, Division of Communication-Media, Ewha Womans University/Reporter,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Kyungm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Yonsei University)

Transparency of a news source is directly related to reliability, realism, and professionalism, which are the requirements of quality journalism. The present study compared the use of anonymous sources in KBS <News 9> to BBC <News at 10> and eventually aimed to identify the pattern of using anonymous sources in Korean broadcasting news. According to an analysis of 329 reports (253 of KBS, 76 of BBC), the use of anonymous sources in KBS news reached 30 percent (76 cases) of all reports, which was far higher than 13.2 percent (10 cases) of BBC. The reality of anonymous coverage has shown a big difference, even though the two broadcasters' editorial guidelines had similar regulations that limited the use of anonymous sources to a minimum. KBS frequently used ordinary citizens as anonymous sources and had a high percentage of anonymously sourced reporting. Another characteristic of KBS anonymous-source reports was editing techniques such as image blurring and voice modulation. In particular, an analysis of the anonymous sources' role in the reports revealed that KBS, unlike BBC, had the characteristic of using anonymous sources to reflect the interested parties or to increase the vividness of the reports. An in-depth interview with a KBS journalist confirmed that it was preferable to cite more sources' comments, even if they were anonymous, due to the news agency's atmosphere which values the quality of vividness. Also, it has been found out that the KBS

* rosy217@naver.com

** kkm0@yonsei.ac.kr, corresponding author

guideline which allows reporters to include off-the-record information in the reports without mentioning the source, facilitated the excessive use of anonymous sources. Therefore, these characteristics should be reconsidered. From the analysis above, researchers concluded that KBS guidelines limiting the use of anonymous sources didn't function properly, and the malfunction may undermine the ethical virtues of journalism and credibility of news reports. Researchers assumed that such excessive use of anonymous sources has a close relation with chronic problems in Korean journalism, such as heavy reliance on government institutions and business, Korean-style news format,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which undervalues the use of transparent sources in reporting. On the other hand, only 10 BBC articles that used anonymous sources were found, so researchers assumed that BBC reporters faithfully followed its guidelines. In the context of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journalism surrounding the use of anonymous sources, researchers discussed what efforts should be supported to prevent misuse of anonymous sources. Further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Keywords: TV News, Anonymous Source, Editorial Guideline, Reporting Routines, Content Analysis

1. 문제의 제기

익명 보도는 정보출처(취재원)의 신원과 소재를 가린 채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의견만 직·간접 인용하는 기사를 말한다. 뉴스 보도에서 익명취재원 이용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순기능을 발휘하고 뉴스 가치를 높인다. 실제로 익명 보도는 취재원 비닉권(protection of sources)을 보장하는 현실적 방안으로 간주된다(이윤희·조연하, 2017). 취재원의 심층정보를 확보함으로써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기사가 극적이고 탐사적이라는 인상도 준다(Blankenburg, 1992). 이런 장점 때문에 <뉴욕타임스> 워싱턴지국장을 역임한 필립 타우브만은 “익명취재원 이용은 언론인에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Purvis, 2015).

하지만 익명취재원 오·남용은 기사가 급조되고 정보가 과장되거나 때로 위조될 수 있다는 뉴스 이용자의 의심을 낳아 언론사와 뉴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받는다(Boeyink, 1990). 과도한 익명취재원 사용은 기사가 손쉽게 재빨리 취재하려는 게으른 방편에 불과하고, 의도와 무관하게 편향된 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Chancellor & Mears, 1995).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익명취재원의 입을 빌려 기사에 인용한 경우가 24%에 달했다는 기사 설문결과(남재일, 2006)도 익명정보가 추측성 또는 주창주의 보도로 오용될 위험성을 시사한다. 언론학계와 언론현장, 일반 대중 모두 익명취재원을 좀 더 현명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기도 하다(Duffy, 2014).

그런 찬반 논란에도 익명취재원 오·남용을 유발하는 조건과 구조, 익명 보도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은 사실상 명쾌하지 않다. 방송뉴스의 익명 보도 실태에 대한 이해는 더 부족하다. 방송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이 인쇄매체보다 심각하다는데(Lasorsa & Reese, 1990) 방송기자의 익명취재원 이용 동기와 유형을 분석한 정도일 뿐(이윤희·조연하, 2017) 체계적인 기사 분석에 기초한 국내 익명취재원 연구는 사례가 드물다(예: 송상근, 2016). 익명 보도 관련 국내연구는 신문기사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박재영·이원수, 2007, 2010; 이재경·김진미, 2010; 장호순·오수정, 2001; 홍연희, 2015). 그러나 TV뉴스는 취재원 익명 처리를 위해 다양한 영상/음성 편집기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익명 취재 유형도 신문보다 복잡적이다.

이런 배경에 따라 이 연구는 영국 공영방송 BBC <10시뉴스(News at 10)>의 익명취재원 이용을 비교 준거로 삼고 KBS <뉴스 9>의 익명 보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흥미롭게도, KBS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editorial guideline)’은 공익 달성, 오프 더 레코드를 통한 더 많은 정보 제공, 제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취지와 목적에 따라 익명취재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통점을 지닌다(BBC, 2020; KBS, 2016). 익명취재원

허용 규정만 놓고 보면 두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익명취재원 인용의 최소화’라는 원칙도 공유하는 듯하다. 물론 규정 조항은 세세한 내역으로 가면 몇 가지 차이점도 드러난다. 이 같은 규정 차이가 익명 취재를 대하는 조직 특유의 분위기나 제작 관행과 연동하며 익명 보도의 차이를 유인할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두 공영방송의 TV뉴스가 실제로 익명취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익명 취재 관련 변수를 설정해 무작위 추출한 기자 리포트를 내용 분석한다. 이를 위해 어떤 사회적 지위와 조직의 익명취재원을 어떤 주제의 기사에서 주로 사용하고, 익명취재원은 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익명취재원 이용이 TV뉴스의 내용적-형식적 도식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취재원의 신원을 숨기고자 영상/음성 편집기법을 어떻게 동원하는지 집중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의 규정이 익명 취재 관행의 조직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내용분석 결과를 실제 현장에선 어떻게 이해하는지 19년차 경력의 KBS 기자 심층 인터뷰를 병행함으로써 조직 문화의 특성이 익명 보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오·남용을 제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제작 관행으로서 익명취재원 이용과 기사 품질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공공문제에 대해 공중이 가능한 많은 정보와 다양한 의견에 노출되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중의 합리적인 토론을 장려하는데 있다(Burkhalter, Gastil, & Kelshaw, 2002; Ryfe, 2005). 공영방송은 사회적 숙의를 위한 공론장으로서 식견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열린 토론의 기회를 제공할 공적 책무가 있다(Corner, 1995; Dahlgren, 1995; Scannel, 1989). 공공문제에 관한 공중의 의견 품질은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정보의 품질에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Druckman, 2014; Price & Neijens, 1997) 공영방송은 어느 매체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와 다양한 의견을 시청자에게 전달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이런 점에서 방송기자가 아마추어 뉴스 블로거 같은 1인 미디어와 차별화하는 최적의 방법은 정확한 사실 정보와 타당한 의견을 투명하게 뉴스로 제공하는 저널리즘의 기본을 실천하는 일이다(Phillips, 2010). 이처럼 정확하고 타당한 정보와 의견은 뉴스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데, 대부분 사안에 정통하고 전문 식견을 지닌 믿음만한 취재원으로부터 나온다(송상근, 2016). 기자가 모든 현장을 관찰할 수도, 또 모든 사안에 정통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투

명한 취재원 이용과 적시는 기사의 미시적 형식 요건을 넘어선다. 기자와 기자가 속한 언론사, 나아가 언론계의 근본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기 때문이다(이재경·김진미, 2000). 따라서 정보출처(취재원)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것은 보도내용이 진실하고 믿을 만한 지적 산물이라는 ‘품질관리 보증서’ 같은 역할을 한다(McNair, 1998).¹⁾

취재원 적시와 인용은 뉴스의 토대인 사실관계의 정확성과 의견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뉴스조직이 기울이는 노력을 반영하므로 기사 품질과 이를 뒷받침하는 저널리즘 가치와 직결된다(좋은저널리즘연구회, 2018; Spurk, Lopata, & Keel, 2010). 메릴(Merrill, 1997)이 제안한 TUFF원칙에 따르면, 저널리즘 품질을 제고하는 가치덕목은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진실 추구에서(Truthful) 비롯한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균형 잡히고(Unbiased) 풍부하고 충실하며(Full) 부당하게 편들지 않는 공정한(Fair) 보도를 위해 저널리스트는 끊임없이 윤리적으로 성찰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견주보면, 과도한 익명 보도는 출처(취재원)가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의 신빙성(진실성)이 떨어지고, 취재원의 균형 잡힌 활용도 의심스러우며, 풍부하고 충실한 정보와 의견을 접해서 공정하게 사안을 판단해야 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박탈해, 이성적인 숙의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방해할 개연성이 크다. 따라서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오·남용은 공영방송의 공정 보도와 공적 책무가 흔들리는 하나의 징표이자 품질 저하의 경고등처럼 비칠 수 있다.

취재원의 투명한 활용은 기자가 얼마나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확보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도 한다(Shoemaker & Reese, 1996). 기사의 신뢰성과 취재원 적시는 떼려야 뗄 수 없다(박재영·이원수, 2007; Kovach & Rosenstiel, 2001). 기자는 ‘관찰자의 관찰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은 정보가 아닌 이상 출처를 모두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김영욱, 2006). 출처를 밝히지 않거나 익명 처리를 오·남용하면 시청자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Blankenburg, 1992; Martin-Kratzer & Thorson, 2007). 그런 점에서 익명취재원 이용은 기사는 물론 기사를 신는 언론사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아나연, 2018; Chadha & Koliska 2015; Morton, 2015; Singer, 2007). 익명 보도가 언론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시청자가 익명취재원이 등장한 기사의 품질을 더 낮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Sternadori & Thorson, 2009). 익명취재원 이용은 수용자

1)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뉴스 제작 과정을 현상학적으로 분석한 투크만(Tuchman, 1978)은 뉴스의 취재원 적시와 인용을 ‘전략적 의례’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 취재원을 활용함으로써 뉴스가 기자 개인의 판단과 생각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과 엄격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친 객관적 지식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사회제도적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로 하여금 저널리스트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게 만들고, 이는 기사에 대한 신뢰도(공신력) 저하로 이어진다. 익명 보도의 오·남용에 따른 뉴스의 품질 비판과 신뢰도 저하는 결과적으로 언론의 무책임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다(Karlsson, 2011; Lasorsa, 2012; Lasorsa, Lewis, & Holton, 2012; Singer, 2007).

결국, 취재원 투명성은 정확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신뢰성 같은 기사 품질의 바탕을 이룬다(송상근, 2016; 좋은저널리즘연구회, 2018). 그럼에도 익명취재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나름의 '불가피한' 현실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심층 인터뷰로 방송기자의 익명취재원 이용 동기를 질적 분석한 이윤희와 조연하(2017)는 이를 '기능', '사회', '편의'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방송기자들에 따르면, 인터뷰를 부담스러워하는 취재원으로부터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기능적 동기), 취재원이 정치·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원을 가리기로 미리 약속하고(사회적 동기), 빠듯한 제작 시간 안에 취재 섭외를 용이하게 하려면(편의적 동기) 익명 보도가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선택지라는 것이다. 조동시와 양승혜(2006)도 '정보원 보호'와 '정보원 요구', '소송 방지' 등을 이유로 들며 현장 기자들이 익명 취재를 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익명 보도의 원인과 조건은 기자의 동기 차원을 넘어선다. 가령 취재 편의주의와 연결된 출입처 중심의 취재 환경은 오프 더 레코드를 관행적으로 양산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찰권이 수사권이 없는 언론으로선 공공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캐내기 위해 주요 취재원과 일종의 묵계 또는 한시적 합의를 맺는 경우가 많다(Shoemaker & Reese, 1996). 비(非)보도를 전제로 한 오프 더 레코드 정보라도 기사화 가능성은 기자와 취재원이 사안 따라 협의하기 나름인 것이다(윤석홍, 1999). 따라서 일상적 취재 관행으로서 오프 더 레코드는 익명 보도의 오·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물론 저널리스트는 핵심정보 창구인 출입처의 취재원이 좀 더 솔직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 권력집단의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프 더 레코드를 조건으로 취재원을 익명 처리한다는 '공익적 필요성'을 내세운다(Hage, Dennis, Ismach, & Hartgen, 1976). 그렇지만 공익적 필요성이라는 자기 합리화와 별개로 익명취재원이 실제로 조심스럽게 활용되고 있는지, 저널리즘 원칙의 실천 수준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문제다. 실제로 <뉴욕타임스> 제이슨 블레이어 기자의 기사 조작 사건 직후 미국 네트워크 TV의 익명취재원 이용은 32%에서 51%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Martin-Kratzer & Thorson, 2007). 조작 사건 이후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익명취재원 인용 비율이 1년 새 35%에서 9%로 급감한 신문과 달리, TV뉴스에선 익명취재원의 심각성을 간과한 채 기존 관행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Martin-Kratzer & Thorson, 2007). 2010년 <뉴욕타임스>는 하루 평균 7.35건의 기

사에서 익명취재원을 이용했고 이 가운데 여러 익명취재원을 한 기사에서 인용한 사례도 있었다(Purvis, 2015). 정보 접근이 어려운 국제와 국가안보 사안이 전체 익명 보도의 60%를 차지하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익명 취재가 여전히 미국 언론인 사이에 만연한 관행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Purvis, 2015).

국내 언론도 다르지 않다. 국내신문 1면을 분석한 이재경과 김진미(2000)는 익명취재원을 사용한 보도가 26%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기사가 원하는 말을 취재원이 언급하면 발언의 진실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보도부터 하고 보는 '취재 편의주의'가 문제로 지적됐다. 박재영과 이완수(2007)에 따르면 한국 신문은 기사당 0.59개의 익명취재원을 사용해 미국(0.53개)보다 높았다. 특히 중앙지와 지방지는 익명취재원 이용이 감소했지만, 방송뉴스에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됐다(박재영·이완수, 2010). 단일 재난보도 사례(세월호 사건)를 집중 분석한 송상근(2016)은 신문과 방송을 불문하고 익명 보도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 모두, 한국 언론의 익명 보도가 편의주의에 기초한 준(準)제도적 관행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익명취재원이 이용되는 맥락과 내용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일정한 패턴을 보여준다. 먼저, 특수한 취재 여건이 특정 주제(topic)의 뉴스에서 익명 보도의 비중을 높인다. 실명 취재로는 불가능한 더 많은 정보를 시청자에게 제공하려다 보니(이윤희·조연하, 2017; 조동시·양승혜, 2006; Hage et al., 1976) 취재 제약이 심한 국제뉴스나 사안의 민감성이 강한 정치뉴스에서 익명취재원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홍연희, 2015; Esposito, 1999;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 Sheehy, 2008; Wulfemeyer, 1985; Wulfemeyer & McFadden, 1986).

미국 언론에서 익명취재원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주제는 국제 분야다. 이 패턴은 일간지, 주간지, TV 모두 비슷했다(Purvis, 2015; Sheehy, 2008; Wulfemeyer, 1985; Wulfemeyer & McFadden, 1986). 1980년대 <타임>과 <뉴스위크>에선 전체 국제뉴스의 88%가 익명취재원을 인용했고(Wulfemeyer, 1985), 네트워크 TV에선 국제뉴스의 56%가 익명취재원을 인용했다(Wulfemeyer & McFadden, 1986). 30년 동안의 <워싱턴포스트> 1면 익명취재원 이용 현황을 분석한 쉬히(Sheehy, 2008)는 익명취재원 등장 비율은 꾸준히 감소했지만, 국제기사는 70%가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취재원을 인용할 정도로 익명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명으로(on the record) 정보를 주지 않는 미국 외교계의 관행, 위험지역(전쟁·테러)을 취재하는 특파원과 본국의 편집국이 실시간 소통하기 어려운 사정, 언론 검열이 강한 해외 여건 등도 익명 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Sheehy, 2008).

익명취재원이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주제는 국내정치다(홍연희, 2015; Esposito, 1999;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 Sheehy, 2008). 아칸소의 지역신문과 〈USA투데이〉를 분석한 퍼비스(Purvis, 2015)는 익명취재 기사의 28%가 워싱턴 정가 소식이었다고 보고했다. 클린턴-르윈스키 스캔들 보도를 분석한 연구도 전체 기사의 72%에서 2,179명의 익명취재원이 등장했다고 밝혔다(Esposito, 1999). 정치뉴스에서 익명취재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추진되는 정부정책이나 보안이 요구되는 입법사안 등 이슈의 민감성 때문이다(Sheehy, 2008). 국내 언론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선일보〉 1면을 분석한 홍연희(2015)는 정치기사(61%)에서 익명취재원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사회(31%), 국제(7%)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선행연구에선 익명취재원이 고위관계자에 집중되는 경향도 관찰됐다(Purvis, 2015; Wulfemeyer, 1985; Wulfemeyer & McFadden, 1986). 〈타임〉과 〈뉴스위크〉의 익명 보도를 분석한 울프마이어(Wulfemeyer, 1985)는 전체 익명취재원의 39%가 고위관계자였다고 밝혔다. 비슷한 시기, 네트워크 TV 분석에서도 전체 익명취재원의 25%가 고위관계자였다(Wulfemeyer & McFadden, 1986). ‘당국자’, ‘○○측근’, ‘외교관계자’ 같은 표현으로(Wulfemeyer, 1985) 정보 접근이 제한된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익명의 고위관계자가 많이 등장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방송뉴스에서도 ‘당국자’가 익명취재원을 지칭하는 가장 흔한 용어였고, ‘소식통’, ‘전문가’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었다. 익명취재원을 사회적 지위로 분류한 국내 연구는 없지만, 직업 유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익명취재원의 35%가 ‘공직자’였다(조동식·양승혜, 2006). 〈조선일보〉 1면의 익명취재원 유형을 살핀 홍연희(2015)도 ‘공직자’와 ‘공무원’의 비율이 54.3%로 가장 높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취재원이 기사의 핵심을 구성하는 정보와 의견의 출처라는 점에서 특정 주제와 사회적 지위(직업/조직)에 취재원이 편중되는 현상은 언론에 요구되는 의제의 다양성 실패, 관점과 견해의 공정성 실패를 의미한다(송상근, 2016; 이민웅 외, 2006). 특정 계층에 집중된 취재원 활용은 누가 기사에 인용될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지, 또 제공하는 관점과 해석이 얼마나 정당하고 권위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다(Tuchman, 1978). 이들의 발언을 위주로 재구성된 뉴스는 사회 내 권력구조와 권위를 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김경모, 2003; 임영호·이현주, 2001). 그런 점에서 익명취재원의 사회적 편중은 문제를 가중시킨다. 고위직 취재원의 익명성은 권력층의 실체를 가린다(Sigal, 1973). 취재 편이주의가 익명취재원 편중과 결합한다면 발언에 대한 공적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국가적 의제의 향방을 좌우하려는 사회엘리트 계층의 정치적 행동에 대한 언론의 방관 문제가 제기된다(김경모, 2003). 그러나 공영방송 TV뉴스에서 익명취재원 이용이 어떤 주제에서 어떤 계층과 지위, 그리고 조직에 편중되는지 분석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TV뉴스의 고정된 형식과 익명취재원 이용의 연관성을 시사하는 분석도 있다. 1980년부터 한국의 방송뉴스에선 1분 30초가량의 기자 리포트 안에 2개의 사운드바이트가 등장하는 (이재경, 2004) 일종의 '도식'이 존재한다.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도식에 맞춰 리포트를 구성하고자 급하게 취재원을 섭외하면서 실명 노출을 꺼려하는 취재원과 익명 보장을 조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한다는 점이다(이윤희·조연하, 2017). 방송뉴스의 포맷에 맞추려는 제작 현실이 익명취재원 이용을 유발하는 셈이다. 미국 3대 네트워크 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을 분석한 울프마이어나 맥퍼든(Wulfemeyer & McFadden, 1986)은 방송뉴스 포맷 가운데 기자 리포트에서 익명취재원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 리포트가 어떤 주제에 대한 분석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전망을 제공하는 취재원이 익명을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했다. KBS와 BBC의 TV뉴스를 비교한 오해정과 최지향(2019)은 KBS 뉴스에서 리포트 비중이 높고 한 개의 리포트에 2개의 사운드바이트가 등장하는 형식적 도식과 함께 사회, 정치 같은 특정 주제에 뉴스가 편중되는 내용적 도식을 발견했다. 이는 뉴스 포맷의 내용적·형식적 도식이 익명취재원 이용에 일정한 조건과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경험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익명취재원 이용 패턴과 함께 또 따져봐야 할 문제는 익명취재원 이용의 적실성이다. 언론사가 익명 보도를 할 수밖에 없다면 타당한 사유를 기사에서 설명해야 한다(Boeyink, 1990). 글래드니, 샤피로, 그리고 레이(Gladney, Shapiro, & Ray, 2013)가 1996년부터 2010년까지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를 분석한 결과, 제이슨 블레이 기자의 표절 사건 이전에 각각 0%였던 익명 취재의 이유 해명은 2006년 〈뉴욕타임스〉 87%, 2007년 〈워싱턴포스트〉 75%까지 급증했다. 연구는 기사에 적시된 익명 보도 사유를 19가지나 꼽았다. '기사를 얻기 위한 최후의 수단', '제보자 신변 보호', '외교안보 이슈처럼 타당한 이유도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 '보복 위험', '더 솔직한 답변을 위해처럼 사소하거나 근거가 애매한 해명도 상당수였다. 하지만 익명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기사는 익명취재원 남용을 자제하고, 수용자는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Gladney et al., 2013). 그러나 TV뉴스의 익명 사유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이 연구는 공영방송 TV뉴스에서 익명취재원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분석한다. 가능한 이용을 자제하는지, 이용하고 있다면 그 패턴은 어떠한지, 또 사유는 밝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KBS와 BBC는 자사 가이드라인에서 익명 보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절차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방송의 TV뉴스가 가

이드라인의 규정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익명취재원 이용의 최소성(적절성)과 타당성을 비교 검토할 준거로 삼고자 먼저 익명 보도 관련 조항을 살펴본다.

2) KBS와 BBC의 익명 취재 가이드라인 비교

시청자는 뉴스 조직의 신뢰도를 판단할 때 뉴스 취재원이 믿을만한지에 큰 영향을 받는다(Benoit & Strathman, 2004; Chung, Fink, & Kaplowitz, 2008). KBS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서 ①책임 있는 보도를 위해 ②단순한 소문과 구별하기 위해 ③오보나 정보 조작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취재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KBS, 2016, 45쪽). 이처럼 취재원 투명성은 보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차원의 방침이다. BBC도 시청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방송과 온라인에서 모든 취재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원칙으로 내세운다. BBC의 '편집 가이드라인'은 취재원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 취재원과 그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만한지 시청자와 독자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한다(BBC, 2020, 3.3.17).

하지만 취재 현황의 사정과 보도 여건은 녹록치 않다. 익명취재원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 두 방송사 모두 익명 보도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BBC, 2020, 3.3.18; KBS, 2016, 45쪽). 두 방송의 가이드라인은 공통으로 ①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에서 ②풍부한 정보 제공 목적의 오프 더 레코드일 경우 ③내부 제보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취재원을 익명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목적이 분명하고 취지가 타당하다면 좀 더 충실한 보도를 위해 익명취재원을 제한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다.

먼저, 기자가 더욱 풍부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기능적 동기'와 연관된 익명취재원 사용이다. KBS는 시청자에게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서 취재원을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KBS, 2016, 46쪽). BBC 규정은 좀 더 세밀하다. 범죄에 노출되거나 범죄를 감지한 경우, 심각하게 반사회적 행동에 노출된 경우, 부정에 노출된 경우, 심각한 부주이나 무능을 폭로하는 경우, 공공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킬 경우,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해 시청자가 더 잘 이해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 할 경우를 '공익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익명 취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BC, 2020, 3.3.18; 6.3.38). 공익이라는 큰 가치 구현을 위해 어느 정도 신뢰도 저하를 감수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사회적 동기'에서 익명취재원을 사용하는 경우다. KBS와 BBC 모두 내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익명취재원 사용을 허용한다. KBS는 취재원 신변이 위태로울 경우, 범죄관련자(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등)일 경우, 심신장애자나 청소년 관련 반사회적 이슈에서 익명 보도를 강조한다(KBS, 2016, 46쪽, 67-68쪽). BBC도 중요한 법적 이슈가 걸

려 있을 때, 민감한 개인적 이슈일 때 익명 보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BBC, 2020, 3.3.18).

두 방송사의 규정에서 상이한 대목은 오프 더 레코드를 적용하는 상황 설정에서 찾을 수 있다. KBS는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심층·배경 정보’를 기사 안에 녹여내는 방편으로 오프 더 레코드 내용을 익명으로 인용할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있다. 기사 말미에서 “~로 보인다.” 또는 “~할 전망이다.” 같은 표현과 함께 취재원에 대한 언급 없이 입수한 정보와 의견을 기사에 반영하는 방식이다.²⁾ 심층·배경 정보 제공 목적의 KBS 익명 조항은 아무래도 취재 관행의 ‘편의적 동기’가 조직 차원에서 제도화한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짧은 문장에 담아내는 정보가 얼마나 심층적일지 의문이며, 익명 표현의 형식 뒤에 숨어 기사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담을 가능성도 있다(김옥조, 2004; 이준웅·김경모, 2008). BBC의 규정엔 상응하는 오프 더 레코드 익명 처리 조항이 따로 없다.

익명취재원 인용의 승인 과정은 BBC가 훨씬 엄격하다. BBC는 익명취재원의 신원에 대해 해당 에디터가 알 권리가 있고, 에디터도 대외적으로 익명취재원의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히, 보도하려는 정보가 다른 취재경로로 확인되지 않아 단일 익명취재원에 출처를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나 기사의 주요 기여자를 익명 처리하려면 반드시 프로그램의 법률 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BBC, 2020, 3.3.18). 기자 개인이 익명취재원 인용을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도록 절차 규정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KBS는 익명취재원을 이용할 때 사전에 상급자나 법률 팀에 자문을 구하라고 규정하는 비는 없다. “취재원의 오프 더 레코드 발언을 인용할 경우 상급자와 상의한다.”는 정도의 일반 지침만 있을 뿐(KBS, 2016, 87쪽) BBC 같은 엄격한 규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한 조항은 없다.³⁾

TV뉴스의 취재원 인용이 인쇄매체와 다른 것은 취재원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화면에 등장한다는 점이다(이윤희·조연하, 2017). 따라서 KBS는 익명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

2) KBS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익명 보도는 취재원의 신원 노출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KBS, 2016, 85쪽). ①완전익명: 추상적 단어로 취재원의 신분을 가린 채 정보를 제공(예: ‘한 외교소식통은 ~’, ‘정치권의 한 고위관 계지는 ~’), ②부분익명: 취재원의 소속과 직책을 표현하는 일반 용어와 함께 정보를 제공(예: ‘외무부의 한 관리에 따르면 ~’), ③오프 더 레코드 익명: 취재원에 대해 일절 언급 없이 심층·배경 정보를 제공(예: ‘~로 보인다.’, ‘~할 전망이다.’).

3) KBS의 제도적 규정 미비는 일선 기자가 조직 차원의 법률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함으로써 취재 편의주의가 작용할 안이한 상황을 조성한다. 뉴스 제작 과정에서 외부의 항의나 송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조동시·양승혜, 2006) 현장 기자의 열악한 취재 환경은 취재원을 익명 처리함으로써 성가신 문제를 미리 피해가려는 편의 수단으로 익명 보도에 의존할 개연성을 높인다.

자이크나 포커스아웃 등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영상 가공으로 출연자의 익명성을 보장할 때 인터뷰이와 가까운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편집 처리할 것을 강조한다. 예컨대, 익명취재원의 이름은 한글이나 영문의 이니셜을 사용해 '김00 씨', 'K 씨', '김모 씨' 등으로 표기하도록 주문한다. 회귀성의 이니셜처럼 주변 사람이 신원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면 'A 씨', 'B 씨' 같은 영문 이니셜을 사용하라고 권고한다. 공직자나 대기업 고위관리자의 직책이나 직함이 기사 내용의 주요 일부를 구성하는 상황에선 관련 신원정보를 익명 처리한 성명 표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공적인 성격을 띤 인물일지라도 사소한 폭행사건처럼 보도 내용이 특정인의 신분과 무관할 경우는 직책, 직함, 경력, 이력을 표기하지 말도록 권고한다(KBS, 2016, 107쪽). 이 같은 규정은 공직자 등 공인(公人)의 익명 처리를 이른바 '반투명'(고홍석·이건호, 2010)에 의존할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BBC는 취재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로 한다면 얼굴 뿐 아니라 머리스타일이나 옷차림까지 철저히 가려야 하고, 포커스아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또 음성의 위장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더빙하는 방식이 음성변조보다 낫다고 강조한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제3자가 취재원의 신원을 알아차릴 수 있는 주변정보(자동차 번호, 집주소 등)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BBC, 2020, 6.3.28; 6.3.29). 익명취재원을 반드시 뉴스에 등장시킬 상황이라면 완벽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기사 품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단순하게 화면과 음성을 편집 처리하라는 것이다.

이상의 비교에서 보듯, BBC와 KBS는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삼고 익명취재원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하지만 취재 현장의 불가피한 여건상 기능적, 사회적, 편의적 이유를 들어(윤석홍, 1999; 이윤희·조연하, 2017; 조동시·양승혜, 2006) 익명 취재를 용인하는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두 언론사 모두 공익 달성, 오프 더 레코드 정보의 보도, 내부 제보자·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익명취재원을 사용하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한다(BBC, 2020; KBS, 2016). 익명을 보장하기로 취재원과 약속했다면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기술을 동원하도록 하는 방침 역시 비슷하다. 물론 언론 문화나 조직 관행의 차이를 반영하는 조항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두 방송사의 제작·편집 가이드라인이 각자의 취재보도 관행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고 저널리즘뉴스를 내용 분석한다. 저널리즘 원칙을 준용하는 가이드라인의 세부 조항에 견줘 두 방송사의 익명취재원 이용 실태를 비교하고, 규정 조항의 실천 여부에 따른 보도 차이를 검토한다.

Table 1. Editorial Guidelines for Using Anonymous Sources

	KBS	BBC
An Exceptional Use	Functioning Purpose: Public interest, Off-The-Record information Social Purpose: For protecting anonymous sources (e.g. Crime related peopl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 Only KBS allows to use Off-The-Record information without citation)	
Permission Procedure	Consult with a senior staff	1. Report anonymous sources' identification to an editor 2. Must consult with a legal staff when depending on only one anonymous source in a report
Visual Effect	Blur Effect, Focus Out	Focus Out
Sound Effect	No Rule	Dubbing
Veiling Procedure	Initialization of Name	Must hide sources' address, car number

3) 연구문제

KBS와 BBC 모두 가이드라인에서 익명취재원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다. 실제 뉴스 제작 현장에서 익명 보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두 공영방송의 TV뉴스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선행연구(박재영·이완수, 2007; 박재영·이완수, 2010; 이재경·김진미, 2000)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KBS와 BBC의 저녁종합뉴스에서 관찰되는 익명취재원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두 방송사의 TV뉴스가 익명 보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제와 정치 주제, 그리고 공직자의 익명 비율이 높고(홍연희, 2015; Esposito, 1999;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 Sheehy, 2008; Wulfemeyer, 1985; Wulfemeyer & McFadden, 1986), 리포트 포맷의 기사에서 익명취재원이 많이 등장한다(Wulfemeyer & McFadden, 1986). 두 공영방송의 TV뉴스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은 어떤 주제와 형식의 기사에서 어떤 역할로 등장하는지, 익명 취재의 타당성을 기사에서 어떻게 해명하는지(Boeyink, 1990; Esposito, 1999; Gladney et al., 2013) 분석하고자 아래 연구문제를 제안한다.

연구문제 2: KBS와 BBC의 저녁종합뉴스에서 관찰되는 익명취재원 이용은 어떤 내용과 맥락 특성

(주제, 포맷, 지위, 익명성, 역할, 익명 사유)을 지녔는가?

KBS와 BBC의 가이드라인은 취재원의 완벽한 익명 보장을 위해 영상/음성 편집기술의 적절한 사용을 허용한다. 편집기술 관련 규정의 적용이 직접 익명 인용(사운드바이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분석하고자 다음 연구문제를 제안한다.

연구문제 3: KBS와 BBC의 저녁종합뉴스는 취재원 신원을 가리기 위해 영상/음성 편집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3.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 수집

KBS <뉴스 9>는 종합뉴스 가운데 시청률이 높고(닐슨 코리아, 2020) K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이다. BBC 영국 국내 뉴스를 대표하는 <10시뉴스>도 영향력이 크다(Aalberg, Aelst, & Curran, 2010). 이를 고려해 두 프로그램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했다.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을 분석기간으로 설정하고, 주 구성 표집(constructed week sampling)에 따라 2주 분량의 기사 리포트를 무작위로 선택했다. KBS는 14일치, 주말 방송이 없는 BBC는 10일치의 기사 리포트를 전량 표본 추출했다.⁴⁾ 프로그램 초입부의 헤드라인 예고, 스포츠뉴스, 날씨예보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스포츠뉴스 타이틀에 앞서 정규뉴스에 포함된 스포츠와 날씨 기사는 뉴스 가치 때문에 전진 배치된 점을 감안해 분석에 포함했다.

2) 내용분석과 심층 인터뷰

이 연구의 분석대상 기사 리포트는 KBS 253건, BBC 76건이었다. 여기서 집계된 익명취재원은 KBS 뉴스 112명(2건당 1명), BBC 뉴스 16명(5건당 1명)이었다. 따라서 내용분석의 단위는 두 가지다. 먼저 어떤 주제와 포맷의 기사에서 익명취재원이 얼마나 어떻게 이용됐는지, 취재

4) 표집일은 1월 15일(월), 2월 6일(화), 3월 7일(수), 4월 12일(목), 5월 18일(금), 6월 16일(토), 7월 8일(일), 7월 30일(월), 8월 14일(화), 9월 19일(수), 10월 25일(목), 11월 9일(금), 12월 1일(토), 12월 16일(일)이다. BBC <10시뉴스>는 주말방송이 없다. 주말(토, 일) 4일은 KBS 뉴스만 해당한다.

원 미상의 심층·배경 정보가 제시됐는지, 익명취재원 사용 이유가 제시됐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별 기사 리포트를 분석단위로 삼았다. 그러나 소속 조직, 사회적 지위, 영상/음성 편집, 기사 내 역할 같은 취재원 속성 관련 변수의 분석에선 기사 리포트에 등장하는 개별 익명취재원(발언)이 분석단위다. 익명취재원은 사운드바이트로 직접 인용된 경우와 기사 멘트에 간접 인용된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⁵⁾ 하나의 기사 안에 익명취재원이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영상과 자막 확인을 통해 동일인으로 판명되면 1회로 코딩했다.

분석 기사의 스크립트를 옮긴 뒤 실제 방송 영상과 비교하면서 사운드바이트와 간접 인용에서 익명취재원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내용 분석했다. 이를 기초로 익명취재원 이용이 어떤 취재 관행과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는지 맥락과 실태를 재확인하고, 내용분석 결과가 내부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될지 알아보고자 KBS 19년차 경력의 김학재 기자(정치부/사회부/외교안보부/시사제작부 근무)를 심층 인터뷰했다.⁶⁾ 인터뷰는 2019년 7월 7일 KBS 본사 인근의 카페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반(半)구조화 조사지를 이용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익명 취재에 대한 KBS 보도국(통합뉴스룸)의 내부 방침과 조직 분위기를 확인하고, 조직 특성이 내용분석 결과와 연관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내부자 의견을 경청했다. 인터뷰이는 연구취지를 설명 듣고 발언 녹취와 신원 공개에 동의했다.

3) 주요 변수의 개념화와 측정

(1) 익명취재원 유형

고홍석과 이근호(2010)는 정보출처가 확실히 명기된 투명취재원, 소속만 드러나고 실명이 없는 반투명취재원, 정보 출처가 불확실한 불투명취재원으로 취재원 유형을 구분했다. 이를 참고해 익명성의 정도를 ①실명 취재원(화면에서 실명이 모두 표기되거나, 실명은 없더라도 직위 등이 정확하게 표기돼 그가 누구인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화면에서 얼굴이나 육성이 여과

5) 사운드바이트는 외부 전문가, 목격자, 정부관리, 정치인, 일반 시민 등이 직접 등장하는 기사 내 인터뷰를 말한다(이재경, 2004). 방송의 효과음과 구분된다. 간접 인용은 “○○관계자에 따르면 ~”처럼 취재원의 발언 내용이나 제공 정보가 기자의 본문 멘트 속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형식을 말한다.

6) 익명취재원 이용의 양적분석을 토대로 두 방송의 익명 보도 특성을 해석하기 위해 원래 KBS와 BBC 기사를 함께 인터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BBC 본사 지침에 따라 한국 상주 특파원의 정식 인터뷰가 불가능해 KBS 기자 인터뷰만 진행했다. 뒤의 분석결과가 보여주듯 BBC의 익명취재원 이용이 극히 제한적이고, 연구의 주목적도 KBS 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을 내부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므로 KBS 기자의 인터뷰만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기자 1명의 인터뷰 증언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석결과의 의미를 해석할 때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없이 등장하지만 자막으로 실명만 안 나오는 경우)⁷⁾, ②부분익명 취재원(소속 정보는 나왔지만 직급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제3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③완전익명 취재원(소속과 실명 모두 알 수 없어 신원을 전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으로 조작 정의했다.

(2) 뉴스 주제

뉴스 주제는 기사가 다루는 사안의 토픽(topic)을 말하며 기사가 ‘무엇에 대한 보도인가?’와 관련된다(박재영·이원수, 2010). KBS의 주제 분류에 따라 ①정치, ②경제, ③사회, ④문화, ⑤국제, ⑥기타로 유형을 구분했다. 코딩 훈련과 애벌 코딩 과정에서 BBC 뉴스의 주제 유형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동일한 항목 체계를 적용했다.

(3) 뉴스 포맷

포맷이란 뉴스 제작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매번 일관되게 유지되는 형식 틀의 구성을 말한다(배진아, 2008). 선행연구(이준웅·황유리, 2004; 한수연·윤석민, 2016)를 참고해 ①기자 리포트, ②현장 생중계/기자 출연, ③기자 리포트+현장 생중계/기자 출연으로 포맷을 조작 정의했다.

(4) 익명취재원의 사회적 지위와 소속 조직

익명취재원의 사회적 지위는 신원 정보로 확인되는 직업(직종)상의 신분율, 소속 조직은 기사에서 드러난 익명취재원의 소속 집단(단체)의 성격을 말한다. 지위와 소속은 김경모(2003)를 차용하되 KBS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반영해 항목을 설정했다.

사회적 지위: ①최고위관리자(대통령/국무총리/국회의장/대법원장/장차관/대기업총수/대학총장/장성 등 최고의사결정권자), ②고위관리자(국회의원/판검사/의사/변호사/교수/벤처·중소기업사장 등 고위 의사결정권자), ③중간관리자(부장·과장급 직급, 연구원 등), ④하급직원/노동자, ⑤대변인(조직의 공적 정보 제공자),⁸⁾ ⑥범죄 관련자(피해자, 피의자, 목격자), ⑦사회적 약자(미성

7) 취재원의 모습과 실명이 모두 밝혀진 경우를 ‘완전실명’, 모습만 등장하거나 실명은 없지만 정확한 직위까지만 등장한 경우를 ‘거의실명’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다만 연구의 초점이 익명취재원 분석이므로 완전실명과 거의실명을 실명취재원으로 단순하게 유형화하고, 실제 분석도 ‘부분익명’과 ‘완전익명’에 집중했다.

8) TV뉴스 인터뷰에서 중앙 정부나 기업의 취재원을 익명 인용하며 ‘○○관계자’라고 밝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행

년자, 장애인), ⑧일반서민(자영업자, 주부), ⑨기타.

소속 조직: ①행정부(중앙관료/지자체), ②입법부(국회의원/보좌관), ③법원·검찰·경찰, ④기타정부기관(지자체, 정부출연기관), ⑤기업, ⑥전문가단체(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등), ⑦사회·시민단체, ⑧기타 비정부기관(병원, 학교, 학원 등), ⑨무소속 일반인(자영업 등), ⑩ 미상/기타.

(5) 익명취재원 역할

뉴스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이 규정을 벗어나 오·남용되는 상황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기사에서 드러나는 익명취재원의 역할을 분석했다. 취재원의 기사 내 역할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워 표본기사를 일일이 읽어가며 귀납적으로 역할을 범주화했다. 기사 전개의 맥락에서 익명취재원의 발언 내용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판단하고 이를 유형화했다. 동일 취재원이 한 기사에서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개별 발언의 역할이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 사례는 1회로 통합해 코딩했다. 역할의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사실전달,⁹⁾ ②현장성 인터뷰(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변 인물을 인터뷰해 사건 정황을 기사에 녹이는 경우, 사안에 대한 일반 시민 반응의 즉흥 인터뷰 포함),¹⁰⁾ ③이해당사자·관계자 입장과 주장,¹¹⁾ ④고발·폭로,¹²⁾ ⑤목적담,¹³⁾ ⑥ 특이 내용 없음.

(6)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정보 제공

KBS 가이드라인이 명시하듯, ‘심층·배경 정보 제공’이라는 취지로 오픈 더 레코드 정보와 의견(분석, 해석, 평가, 전망)을 취재원을 아예 밝히지 않은 채 전달하는 유형의 익명 보도를 말한다. “~로 보인다.”, “~로 전망된다.” 같은 관행적 표현으로 기사가 끝나는 문장을 사용하는 사례가

정부의 국장이나 과장급, 기업의 부장급이 기사를 응대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대면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례는 중간 관리자로 코딩했다.

9) 익명취재원이 기사에서 새로운 사실(fact)을 전달하는 경우다. 예컨대, 2월 6일 보도된 ‘이방카 폐막식 참석…北美 평창 외교전 주목’ 기사는 백악관 관계자라는 익명 취재원을 인용하면서 이방카가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참석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전달했다.

10) 해당 사건이나 이슈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같은 업계에 종사하면서 분위기를 전달하거나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 반응을 익명으로 보도하는 경우다.

11) 사건과 이슈의 이해당사자나 관계자가 익명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주장을 밝히는 사례다.

12) 내부 제보자가 익명으로 기사에 등장해 숨겨진 문체적 사실을 밝히는 경우다. 예컨대, 11월 9일 보도된 ‘양진호, 음란물 금지어 맘대로 해제…무차별 소송 갑질’ 기사는 전직 직원의 익명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양 씨의 갑질 행태를 고발한다.

13) 사건, 사고 등 현장 상황을 직접 목격한 뒤 익명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다.

여기에 해당한다. 이분 항목(예/아니오)으로 코딩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규정은 없지만 BBC 뉴스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익명 처리 유형이 있는지 확인했다.

(7) 익명 처리 사유

취재원을 익명 처리한 이유를 기사 안에서 적절하게 해명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한다. 이분 항목(예/아니오)으로 단순하게 코딩했다.

(8) 익명취재원의 영상/음성 편집

두 방송사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면 익명취재원의 신원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포커스아웃, 더빙 등을 통해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BC, 2020; KBS, 2016). 모자이크 처리는 취재원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화면을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포커스 아웃은 취재원 주변의 사물에 초점을 맞춰 취재원의 정체를 감추는 영상 편집을 말한다.¹⁴⁾ 음성변조는 취재원 목소리에 기계음을 입힌 것을, 더빙은 성우나 기자의 목소리를 취재원 목소리 위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취재원의 신원을 가리는 음성 처리를 말한다. 익명 취재원의 신원을 숨기려는 편집은 영상과 음성을 동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상/음성 편집은 ① 모자이크, ②포커스아웃, ③음성변조, ④더빙, ⑤모자이크+음성변조, ⑥모자이크+더빙, ⑦포커스아웃+음성변조, ⑧ 포커스아웃+더빙, ⑨기타로 항목을 유형화했다.

4) 코더 간 신뢰도

언론학 박사과정에서 재학 중인 현직 방송기와 방송과 신문에서 활동했던 전직 기사가 코딩에 참가했다. 코딩지침서에 따른 코딩 훈련과 애벌 코딩 과정에서 협의를 거친 뒤 최종 코딩 가이드북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표본 기사를 코딩했다. 코더 간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전체 기사의 약 10%를 무작위로 뽑아 크리펜돌프 알파를 산출했다. 주요 변수의 최종 코더 간 신뢰도는 익명취재원 유형 1.0, 뉴스 주제 .87, 뉴스 포맷 1.0, 투명취재원 수 .90, 익명취재원 수 .87, 익명취재원 소속 조직 .89, 익명취재원 사회적 지위 .82, 영상/음성 편집 1.0, 익명취재원 역할 .99, 익명처리 이유 1.0,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정보 유무 1.0이었다.

14) 인터뷰 대상자를 찍되 다른 사물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다리 같이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신체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또는 마스크나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인터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4. 분석결과

1) 익명 보도 실태

분석대상 기자 리포트 가운데 익명취재원을 사용한 기사는 KBS 76건(30%), BBC 10건(13.2%)이었다. KBS 뉴스의 익명 보도가 훨씬 많았다($\chi^2(1) = 8.63, p = .003$). 한국 언론의 익명 보도 비율이 25-30% 정도라고 보고하는 선행연구(이재경·김진미, 2000)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Table 2. Frequency of Using Anonymous Sources

(Unit: the Number of Articles, %)

	Using Anonymous Sources	All
KBS	76 (30)	253 (100)
BBC	10 (13.2)	76 (100)
All	86 (26.1)	329 (100)

$\chi^2(1) = 8.63, p < .01.$

익명취재원의 육성이 실리는 사운드바이트 방식과 기사 본문 안에 간접 인용되는 방식을 비교했다. KBS 뉴스에선 253건의 리포트에서 112회 익명취재원이 등장했다. 여기서 91회(81.3%)는 사운드바이트, 21회(18.8%)는 간접 인용이었다. BBC 뉴스에선 76건의 리포트에서 익명취재원이 16회 이용됐다. 사운드바이트 인용은 7회(43.8%), 간접 인용은 9회(56.3%)로 빈도가 비슷했다.

Table 3. Quotation Style of Anonymous Sources in Reports

(Unit: the Number of Times, %)

	Sound Bite	Indirect Quotation	All
KBS	91 (81.3)	21 (18.8)	112 (100)
BBC	7 (43.8)	9 (56.3)	16 (100)
All	98 (76.6)	30 (23.4)	128 (100)

$\chi^2(1) = 10.97, p < .01.$

두 방송사는 가이드라인에서 익명 보도를 허용하는 예외적 상황을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 BBC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 원칙을 준수하면서 익명취재를 제한하는 조직문화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BBC는 신입기자를 대상으로 익명 취재 관련 가이드라인을 위우도록 훈련하고, 기자

도 취재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을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¹⁵⁾ 반면, KBS 김 기자는 “6개월의 수습기자 시절에 가이드라인을 교육하지만 익명과 실명을 판단해야 하는 실제 현장에선 상급자와 상의하면서 사안마다 그때그때 익명 여부를 결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KBS는 문서화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보다 경험에 따라 상황에 맞춰 임기응변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조직문화에 더 가깝다는 것이다.

“어떤 규정된 시간에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아이템(취재)을 하면서, 실제로 부딪히면서, 일진과 캡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익명 보도 여부를) 배워나가는 것이 훨씬 많다.”

2) 익명취재원의 사회적 지위

익명취재원의 사회적 지위가 어떤 분포를 띠는지 검토했다. KBS 뉴스는 완전익명취재원에서 일반서민이 절반(36회, 50%)으로 가장 많았고, 중간관리자가 13회(18.1%)로 뒤를 이었다. 익명취재원의 소속 조직이 드러나는 부분익명 취재원에선 중간관리자가 24회(60%)로 가장 많았고, 고위관리자 6회(15%) 순이었다. BBC 뉴스의 경우, 완전익명 처리한 사례는 범죄관련자가 5회(45.5%), 일반서민 4회(36.4%)였다. 부분익명 처리는 고위관리자와 중간관리자가 각각 2회씩이었다. 관련 문헌은 대체로 고위관계자의 익명 처리 비율이 높은 패턴을 보고한다(조동시·양승혜, 2006; 홍연희, 2015; Purvis, 2015; Wulfemeyer, 1985; Wulfemeyer & McFadden, 1986). 하지만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반서민과 중간관리자의 익명 처리 비율이 훨씬 높아 선행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가이드라인의 신원보호 조항과 관련해 범죄관련자(피해자, 피의자, 목격자)를 익명 처리한 사례는 두 방송 모두 5회로 동일했는데, 전부 완전익명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취재원의 사회적 지위를 따로 분석하지 않아 전체 범죄관련자 가운데 완전익명 처리한 비율에서 두 방송사가 얼마나 다른지 직접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분석대상 전체 건수(KBS 253건, BBC 76건)와 익명 보도 비율(KBS 30%, BBC 13.2%)을 고려하면 BBC 뉴스가 범죄관련자를 더 적극적으로 익명 처리하면서 신원 보호에 유의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

눈에 띄는 점은 KBS 뉴스의 부분익명 취재원 가운데 중간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중(24회,

15) 정식 인터뷰를 타진하던 단계에서 BBC 서울지사에 근무하는 한 기자는 익명을 요청한 대화에서 “BBC는 입사 직후 가이드라인을 통째로 외우게 하고 상사 앞에서 외운 부분을 말해보도록 한다. 당연히 취재할 때도 가이드라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했다(2019년 2월 25일, 연구자와 개인 대화).

60%)이 상당하다는 사실이다. 기자가 주로 접촉하는 취재원이 행정부 국·과장급이나 기업체의 부장급이라는 출입처 취재 현실과 연계된 결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보면, BBC 뉴스가 사회 권력층 취재원의 익명 처리를 훨씬 엄격하게 제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

Table 4. Anonymous Sources' Social Status

(Unit: the Number of Times, %)

		a Top Official	a Senior Official	Intermediate Manager	a Junior Staff	a Spokes person	a Crime Related Person	a Socially Advantage d Person	the Common People	Others	All
KBS	Partially Anonymous	0 (0)	6 (15)	24 (60)	6 (15)	1 (2.5)	0 (0)	0 (0)	0 (0)	3 (7.5)	40 (100)
	Totally Anonymous	1 (1.4)	4 (5.6)	13 (18.1)	4 (5.6)	1 (1.4)	5 (6.9)	3 (4.2)	36 (50)	5 (6.9)	72 (100)
	Partially Anonymous	0 (0)	2 (40)	2 (40)	1 (20)	0 (0)	0 (0)	0 (0)	0 (0)	0 (0)	5 (100)
BBC	Totally Anonymous	0 (0)	0 (0)	1 (9.1)	0 (0)	0 (0)	5 (45.5)	0 (0)	4 (36.4)	1 (9.1)	11 (100)

KBS: $\chi^2(8) = 44.02, p < .001$.

3) 익명취재원의 소속 조직

익명취재원이 속한 조직의 유형을 분석했다. KBS 뉴스는 부분익명 처리가 행정부 15회(37.5%)와 기업 9회(22.5%)에 집중됐다. 완전익명 취재원의 경우, 일반서민(42회, 58.3%)과 기업(13회, 18.1%)의 비중이 높았다. 사회적 지위와의 연관성까지 고려하면, 기자와 취재원 간의 사회적 관계 유지 또는 취재 편의주의 동기가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분익명 처리의 경우, 행정부와 기업관계자의 상대적 비중이 높았다. 이 역시 소속 조직만 노출시킴으로써 정보출처의 투명성을 적당한 선에서 보장하면서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이 조직 내에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출입처 기자와 취재원이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묵계가 관행처럼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일반 시민 취재원은 완전익명 비중이 높았다. 초상권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감안할 때(김위근·안수찬·백영민, 2018)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이해된다. 내부 법무팀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BBC와 달리 KBS는 사실상 취재기자 차원에서 익명 여부를 결정하는 여건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반면, BBC 뉴스의 부분 익명 취재원은 5회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경찰·검찰·법원관계자가 2회였다. 완전익명의 경우, 일반인의 비중이 9회(81%)였다. 취재원의 신변 보호와 사인(私人)의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BBC, 2020)로 추론된다. BBC 뉴스에서 정부관계자는 실명 처리가 기본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KBS와 BBC 뉴스에서 익명취재원이 거의 등장하지 않은 조직은 전문가단체였다. 이들이 제공하는 전문식견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개성에 기댈 수밖에 없다. 폭로와 고발 같은 특수 사정이 아니라면 전문가 취재원은 오히려 투명 처리하는 것이 보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취재 관행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Table 5. Anonymous Source's Belonging Organization

(Unit: the Number of Times, %)

	Administra- tion	A Legislative Body	Police Prosecution Court	Other Government Institution	Corporation	An Expert	A Social Civic organization	Other Non- Government- Organization	the Common People	Others	All	
KBS	Partially Anonymous	15 (37.5)	3 (7.5)	4 (10)	2 (5)	9 (22.5)	0 (0)	1 (2.5)	1 (2.5)	0 (0)	5 (12.5)	40 (100)
	Totally Anonymous	5 (6.9)	0 (0)	0 (0)	0 (0)	13 (18.1)	1 (1.4)	0 (0)	1 (1.4)	42 (58.3)	10 (13.9)	72 (100)
BBC	Partially Anonymous	1 (20)	0 (0)	2 (40)	1 (20)	0 (0)	0 (0)	1 (20)	0 (0)	0 (0)	0 (0)	5 (100)
	Totally Anonymous	0 (0)	0 (0)	0 (0)	0 (0)	1 (9.1)	0 (0)	0 (0)	0 (0)	9 (81.8)	1 (9.1)	11 (100)

KBS: $\chi^2(9) = 55.80, p < .001$.

KBS 뉴스에서 중간관리자, 특히 행정부와 기업관계자가 부분익명 취재원으로 빈번하게 등장한 이유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자 했다. KBS 김 기자는 “출입처에서 익명을 요구하고, 수위 역시 먼저 선을 정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비밀비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의 조건을 요청하는 것은 기업관계자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출입처 의존도가 높고 관급뉴스 비중도 상당한 한국 언론계의 전반적인 취재 환경이 부분익명을 포함한 익명 보도 비중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놓고 (출입처에서) ‘청와대 관계자로 해주세요.’, ‘통일부 관계자로 해주세요.’ 하고 정부에서 익명과 실명의 수위를 자기들이 (미리) 정해서 브리핑을 하니까 ...”

4) 뉴스 주제와 포맷에 따른 익명취재원 이용

KBS 뉴스가 익명취재원을 가장 많이 인용한 주제는 사회였다. 43건(56.6%)을 차지했다. 정치(17건, 22.4%)와 경제(13건, 17.1%)가 뒤를 이었다. 문화 분야의 익명취재원 이용은 한 건도

관찰되지 않았다. BBC 뉴스의 익명 보도 10건은 사회 6건과 국제 4건에 집중됐다. 국제 (Purvis, 2015; Sheehy, 2008; Wulfemeyer, 1985; Wulfemeyer & McFadden, 1986) 와 정치(홍연희, 2015; Esposito, 1999;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에 익명취재원이 자주 등장한다는 선행연구와 결이 다른 결과다. 분석기간 동안 KBS 뉴스의 주제는 사회(106건, 41.9%), 정치(81건, 32%), 경제(34건, 13.4%)의 비중이, BBC 뉴스는 사회(27건, 35.5%), 국제(24건, 31.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특정 주제, 곧 국제(외교), 정치 같은 주제 영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취재 여건의 차이가 아니라 주제 분포 자체가 몇몇 의제에 편중된 방송뉴스의 내용적 도식(오해정·최지향, 2019)이 일정한 익명 보도의 패턴을 유발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Table 6. News Topic Frequency Using Anonymous Sources

(Unit: the Number of Times, %)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International	Other	All
KBS	17 (22.4)	13 (17.1)	43 (56.6)	0 (0)	3 (3.9)	0 (0)	76 (100)
BBC	0 (0)	0 (0)	6 (60)	0 (0)	4 (40)	0 (0)	10 (100)

KBS: $\chi^2(5) = 18.08, p < .01$.

한국 TV뉴스의 형식적 도식, 곧 1분 30초 리포트에 2개의 인터뷰를 거의 고정적으로 실어야 하는 포맷 특성 때문에 재빠른 취재원 섭외에 부담을 느끼는 기자들이 취재원을 익명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 있다(이윤희·조연하, 2017; 이재경, 2004). KBS 뉴스의 경우, 기자 리포트 기사에서 익명취재원을 사용한 사례는 70건(30.3%)이었다. 기자출연·생중계 기사의 익명취재원 사용은 3건(15.8%)이었다. 리포트+기자출연/기자 생중계 포맷의 기사는 3건 모두 익명취재원을 이용했다. 기자 리포트 포맷의 익명취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결과다($\chi^2(2) = 8.83, p = .012$).

BBC 뉴스도 기자 리포트의 익명취재원 사용 빈도가 6건(11.3%)으로 가장 많았다. 기자출연·생중계에서 익명취재원이 등장한 경우는 3건(25%)이었고, 리포트+기자출연/기자 생중계 포맷의 기사에서 익명취재원이 등장한 사례는 1건이었다. BBC 뉴스는 익명 보도가 10건에 불과해 결과 수치만 제공한다.

Table 7. News Formats Using Anonymous Sources

(Unit: the Number of Times, %)

		Non Anonymous Source	Anonymous Source	All
KBS	Report	161 (69.7)	70 (30.3)	231 (100)
	Studio-Live Relay	16 (84.2)	3 (15.8)	19 (100)
	Report+ Studio-Live Relay	0 (0)	3 (100)	3 (100)
BBC	Report	47 (88.7)	6 (11.3)	53 (100)
	Studio-Live Relay	9 (75)	3 (25)	12 (100)
	Report+ Studio-Live Relay	10 (90.9)	1 (9.1)	11 (100)

KBS: $\chi^2(2) = 8.83, p < .05$.

5) 익명취재원의 기사 내 역할

익명취재원의 기사 내 역할을 분석했다. KBS 뉴스에선 이해당사자(측근)의 입장/주장(48회, 42.9%), 현장성 인터뷰(24회, 21.4%), 사실전달(19회, 17%), 목격담 제공(11회, 9.8%)과 같이 역할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반면, BBC 뉴스는 사실전달(6회, 37.5%)과 목격담 제공(5회, 31.3%)에 익명취재원 이용이 집중됐다.

Table 8. Anonymous Sources' Roles in the Reports

(Unit: the Number of Times, %)

	Factual	Vividness	Interested Parties	Accusation	Eyewitness	No Role	All
KBS	19 (17)	24 (21.4)	48 (42.9)	7 (6.3)	11 (9.8)	3 (2.7)	112 (100)
BBC	6 (37.5)	1 (6.3)	4 (25)	0 (0)	5 (31.3)	0 (0)	16 (100)

$\chi^2(5) = 12.345, p < .05$.

흥미로운 차이는 KBS 뉴스에선 입장감을 살리고자 익명취재원을 현장 인터뷰하는 사례가 24회(21.4%)에 달했지만, BBC 뉴스에선 단 1회에 그쳤다는 점이다. 현장성 인터뷰란 특정사 안과 관련해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변인이 정황을 말하는 경우(일반 시민의 반응 포함)를 가리킨다. 주변인이나 일반 시민의 즉흥성 인터뷰를 익명으로 녹여 기사의 현장감을 살리는 방식은 다양한 사례에서 관찰됐다. 가령 KBS 뉴스는 3월 7일자 '정봉주, 출마선언 돌연 취소 ... 미투

확산에 정치권 뒤숭숭' 기사에서 미투 운동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된다는 추측성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보좌관의 익명 인터뷰를 실어 당시 정치권 분위기를 전달했다.

국회의원 보좌관 (익명): “국회에서 근무하는 저희조차도 정치에 대해서 거의 환멸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겪고 있고, 자고 나면 내일은 또 뭐가 나올지 ….”

정보 가치가 떨어지는 익명 인터뷰가 실리는 경우도 있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원을 접촉하려 애썼다는 상황을 알리려는 목적 외에 딱히 익명취재원을 등장시킬 이유를 찾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예컨대, KBS 뉴스 3월 7일자 '세시봉 가수 윤형주, 회삿돈 빼돌려 빌라 구입' 기사는 관련 의혹을 다루면서 윤 씨가 거주하는 빌라 경비원의 익명 인터뷰를 사용했다.

빌라 경비원 (익명): “(지금도 살고 계시죠?) 네. (여기 언제쯤 이사 오셨어요? 윤형주 씨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래됐어요.”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문을 보도한 12월 1일자 KBS 기사 역시 당시 불법취업 주도 의혹을 받던 장관을 기자가 접촉할 수 없었던 현장 상황을 전달하고자 음성 변조한 익명취재원을 등장시켰다.

정부과천청사 직원 (음성변조): “(장관님, 나가셨어요?) 16시 56분(에 나갔어요), 일단은 적힌 그대로인데 ….”

KBS 김 기자는 “현장성(임장감)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KBS 보도국의 내부 분위기 때문에 익명취재원을 사용해서라도 기사의 현장감을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익명취재원 사용이 기사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일반의 우려와 달리, 일선 기자는 익명취재원을 이용해 한 건의 인터뷰라도 더 신는 것이 오히려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KBS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회 주제에서 일반인의 익명취재원이 빈번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KBS 뉴스는 시민 반응이나 주변 상황을 알려주는 관계자 인터뷰가 익명 사운드바이트로 등장하는 빈도가 높았다.

“현장 분위기를 전달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굳이 녹취가 실명으로 나갈 필요는 없다. (익명으

로라도 쓰는 이유는 리포트를 위해 우리가 현장을 찾아갔고, 현장이 어떠한 상황인지 입장감을 녹이고 싶어서 많이 쓰는 측면이 있다. 기자가 어딜 갔는지 실제 현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생생하게 녹취해서 전달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익명을 많이 써서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한편, KBS 뉴스에서 익명취재원으로서 정부조직과 기업의 관계자는 사실전달(행정부 10회, 50%)과 이해당사자(입법부 2회, 66%; 경찰·검찰·법원 3회, 75%; 기업 13회, 59.1%)로 기사에 등장한 비중이 높았다. 일반서민은 대부분 현장성 인터뷰(15회, 35.7%), 이해당사자(16회, 38.1%), 목격담 제공(10회, 23.8%) 역할로 등장했다($\chi^2(45) = 68.56, p = .013$). 전체 익명 인터뷰 사례가 16회에 지나지 않은 BBC 뉴스의 경우, 정부조직(3회)과 기업(1회)의 관계자는 모두 새로운 사실의 전달 목적으로 기사에 등장했다. 일반서민이 익명으로 등장한 비중이 9회로 가장 많았지만, 이해당사자(4회)와 목격담 제공(4회) 역할이었다. 빈곤층 또는 범죄 관련 보도에서 인용되는 일반인이나 범죄관계자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라는 취지가 분명한 사례들이었다. 정부조직과 기업의 관계자가 ‘해명성’ 발언을 위해 이해당사자로 익명 등장하고, 일반인이 뉴스의 입장감을 주거나 현장성 증후 인터뷰를 통해 자주 등장하는 KBS 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6)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설명 제공

KBS는 가이드라인에서 오프 더 레코드로 정보를 얻은 경우 취재원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로 보인다.” 또는 “~할 전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사안의 심층·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BBC의 가이드라인에는 유사 규정이 없다. 분석, 해석, 전망, 평가 등을 익명으로 허용하는 이 같은 표현 관행이 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 주로 활용되는 점에 착안해 해당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다.

KBS 뉴스에서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정보 제시 기사는 32건(12.6%)이었다. BBC 뉴스는 2건(2.6%)에 불과했다($\chi^2(1) = 6.33, p = .012$).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 BBC와 달리, 취재원 미상의 정보·의견 표현 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함으로써 익명 보도를 양성화한 독특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Table 9. News Reports with Non-Sources on Off-The-Record Information

(Unit: the Number of Times, %)

	Non-Sources on Off-The-Record Information	Other	All
KBS	32 (12.6)	221 (87.4)	253 (100)
BBC	2 (2.6)	74 (97.4)	76 (100)

$\chi^2(1) = 6.33, p < .05.$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표현이 많이 등장한 KBS 뉴스를 대상으로 뉴스 주제와의 연관성을 살폈다. 분석결과,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정보 기사는 정치(21건, 65.6%)가 가장 많았다. 사회(5건, 15.6%)가 뒤를 이었고, 경제와 문화, 국제는 모두 2건씩(6.3%)이었다($\chi^2(5) = 23.39, p < .001$). BBC 뉴스의 경우,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표현 기사는 2건으로, 각각 국제와 정치였다.¹⁶⁾ 그러나 기사 말미에 언급하는 취재원 미상의 전망은 기사의 의견을 담았다고 추정할 도리 외에 어떤 것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은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표현이 KBS 뉴스에서 훨씬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KBS 김 기사는 가이드라인의 영향도 있겠지만 주제에 상관없이 짧은 길이의 뉴스를 선호하는 TV뉴스 도식과 방송시간 제약이 외려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보도국 내부에선 이런 표현방식을 익명 보도의 신뢰성 문제로 여길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 때문에 기사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인터뷰이의 이름을 마지막 문장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실명으로 인터뷰가 나갔던 사람들의 의견일 것이라고 (시청자들이)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보고 마지막 문장에 (취재원 언급 없이) 압축하는 것이다.”

16) BBC 뉴스는 3월 7일자 기사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영국 순방을 다뤘다. 영국 정부가 무역문제로 왕세자 방문을 추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예멘내전 개입에 반대하는 영국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경제적, 사회적 개혁을 추진하고 여권 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가 영국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신장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취재원 미상의 전망을 내리면서 기사를 끝냈다. 또 10월 25일자 기사는 영국 세계 거물인 아카디아그룹 필립 그린 회장이 성희롱, 인종차별적 행동, 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항소법원이 실명을 언론에서 공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지만 상원이 이를 공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기사는 마지막에 “여성의류 브랜드 최고 매장 등을 소유한 아카디아 그룹은 여성 고객이 주 타깃인 만큼 이러한 성추행 혐의에 대해 여성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상업적으로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취재원 미상의 전망을 내놨다.

정보 접근이 쉽지 않고 취재 제약이 심한 편인 국내 정치기사에서 익명취재원 등장 빈도가 높은 경향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홍연희, 2015; Esposito, 1999; Martin-Kratzer & Thorson, 2007; Purvis, 2015; Sheehy, 2008). 이 연구는 앞서 주제 분석에서 익명취재원 이용이 정치(17건, 22.4%)보다 사회(43건, 56.6%)에 더 집중됐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표현 기사가 사회(5건, 15.6%)보다 정치(21건, 65.6%)에 몰려있는 상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철저히 익명에 기대는 이런 표현 관행이 보도 사안에 대한 기자의 정치적 견해를 감추려는 방편인지 정치인의 오프 더 레코드 정보를 녹여내는 방법인지 시청자로선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7) 익명 처리의 사유 설명

분석기사 329건 가운데 익명취재원이 이용된 기사는 86건(26%)이었다(KBS 76건, BBC 10건). 이 가운데 익명 보도의 사유를 밝힌 기사는 BBC 뉴스 2건에 불과했다. KBS 뉴스는 1건도 없었다. BBC의 ‘빈곤층 어린이 돌봄 예산 삭감’ 기사(2월 6일 방송)는 빈곤층 여성 2명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익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모두 뒷모습을 촬영해서 신원을 보호했다. ‘러시아 스파이 살해 조사’ 기사(3월 7일 방송)는 사건 당시 목격자를 인터뷰하면서 그가 익명을 요구했다고 표현했다. 이 목격자 역시 뒷모습으로 뉴스에 등장했다.

저널리즘 원칙을 따르자면 익명 취재의 타당한 사유를 기사에서 밝혀야 한다(Boeyink, 1990). 하지만 두 방송 모두 익명취재원을 이용하는 이유를 시청자에게 설명하는 일에 소홀했다. KBS 김 기자는 1분 30초 분량으로 굳어진 TV뉴스 도식을 원인으로 꼽았다. KBS 보도국은 시청률 때문에 짧은 리포트를 연이어 방송하는 ‘백화점식 뉴스’를 여전히 선호하고 있고, 일선 기자들 역시 “리포트가 길어지면 시청률이 떨어진다.”는 위기감을 바탕으로 깔고 짧은 뉴스를 제작하는데 익숙한 일상에서 익명취재원을 이용하는 이유까지 매번 기사에서 언급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방송 데일리뉴스는 분, 초를 다투는데 왜 리포트에서 익명취재원을 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두 문장, 세 문장 쓸 수 없다. … 호흡(리포트 길이)이 길면 한 마디로 (시청자들이) 싫어하더라.”

8) 익명취재원의 영상/음성 편집

KBS와 BBC는 익명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때 제3자가 식별할 수 없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강조한다. 영상 처리에서 KBS는 모자이크와 포커스아웃을, BBC는 포

커스아웃을 하도록 권한다. 음성 처리의 경우, BBC는 더빙을 권장한다(BBC, 2020; KBS, 2016). KBS의 음성 관련 규정은 따로 없다. 익명취재원의 영상/음성 처리에서 나타나는 두 방송의 편집방식 차이를 파악하고자 직접 인용된 익명 사운드바이트(KBS 91회, BBC 7회)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KBS의 인위적인 영상/음성 편집 사례가 월등했으며, 방식도 다양했다. 편집방식으로 익명취재원의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자료화면을 쓴 경우가 49회(53.8%)로 가장 많았다.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혼용한 16회(17.6%), 포커스아웃과 음성변조를 함께 쓴 13회(14.3%)가 뒤를 이었다. 취재원의 신원을 숨기는 과정에서 여러 기법을 혼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BBC 뉴스는 익명취재원의 사운드바이트가 등장한 7회 가운데 6회를 포커스아웃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변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대신 BBC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듯, 더빙과 함께 익명취재원에 대해 포커스아웃을 한 사례가 한차례 있었다.

두 방송에서 다소 특이하게 편집 처리한 익명취재원 재현 방식도 관찰됐다. 기내식 대란을 초래한 경영진을 규탄하는 아시아나항공사 직원들의 항의집회 기사를 들 수 있다.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거나 가면을 쓴 집회 참가자를 현장 인터뷰한 기사는 인위적인 영상/음성 편집 없이 익명을 보장하는 사례였다(KBS 7월 8일 방송). BBC 뉴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코בל소 불법사냥을 눈감아주는 부패 관리의 뇌물수수를 폭로하는 장면을 익명으로 다뤘다. 취재원을 컴퓨터 모니터에 비친 실루엣으로 촬영하는 인터뷰로 익명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영상 품질을 담보하는 기법을 선보였다(BBC 8월 14일 방송).

Table 10. Anonymous Source Editing Style

(Unit: the Number of Times, %)

	Blur Effect	Focus Out	Voice Modulation +Related Video	Blur Effect+ Voice Modulation	Focus Out+ Voice Modulation	Focus Out+ Dubbing	All
KBS	6 (6.6)	7 (7.7)	49 (53.8)	16 (17.6)	13 (14.3)	0 (0)	91 (100)
BBC	0 (0)	6 (85.7)	0 (0)	0 (0)	0 (0)	1 (14.3)	7 (100)

$\chi^2(5) = 49.29, p < .001.$

분석결과가 말하듯, KBS와 BBC 모두 익명취재원의 신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자사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KBS 뉴스에선 규정에 없는 음성변조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관찰됐다. KBS 김 기사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의 혼용을 선호하는 것은

익명취재원의 주위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형식(포커스아웃)이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덧씌우는 더빙보다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커스아웃해서) 화분으로 가려서 그 사람의 실루엣조차 없어지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음성변조도 대역을 써서 (더빙)하면 이 사람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 시청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음성변조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시청자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도, 진짜 녹취를 해서, 인터뷰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호한다.”

그러나 선호하는 편집방식이 실제로 신뢰도가 더 높은지 검증하긴 쉽지 않다. 오히려 방식을 가릴 것 없이 여러 기법을 혼용한다는 점에서 사운드바이트의 익명 처리가 무원칙해 보인다. KBS 김 기자 역시 “과도한 영상/음성 편집 처리가 화면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작위성을 가해 ‘실제 그대로’ 뉴스의 자연스러움을 해치기 때문에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KBS 내부 비판도 있다고 설명했다.

5. 논의

이 연구는 KBS <뉴스 9>와 BBC <10시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형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오·남용 실태를 추적했다. 두 방송사의 가이드라인은 비슷한 규정을 통해 익명취재원 이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KBS 뉴스가 분석대상 기사의 30%(76건)에서 익명취재원을 사용해 13.2%(10건)에 머문 BBC 뉴스보다 익명 보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BC 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은 통계분석이 무의미할 정도로 표본에서 관찰되는 사례 자체가 적었다.

두 공영방송의 가이드라인이 규정하듯, 공익 목적, 오프 더 레코드 상황, 그리고 취재원 보호를 위한 취지라면 익명 보도를 크게 문제 삼기 어렵다. 하지만 익명취재원이 기사에 등장하는 맥락과 방식, 그리고 역할을 내용 분석한 바에 따르면, KBS 뉴스에선 규정상의 타당한 목적과 인권보호 취지를 넘어 취재 편이나 제작 관행에 따라 취재원을 익명 취재하는 기사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익명취재원 이용은 사실의 투명성에 기초한 진실 추구라는 저널리즘의 윤리 덕목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Merrill, 1997), 기사나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문제를 안고 있다(Blankenburg, 1992; Martin-Kratzer & Thorson, 2007). 특히, 가능하면 익명 보도를

피하라고 주문하는 일반 원칙과 상이한 KBS 보도국의 내부 분위기가 포착됐다. KBS 기자 인터뷰에 따르면, 방송기사에서 입장감을 강조하는 제작 관행이 익명 취재를 유도하는 KBS 뉴스의 조직 특성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익명 처리를 해서라도 취재원 인터뷰를 기사에 반영하는 것이 뉴스의 사실성(현장감)을 살리고 기사 신뢰성도 높이는 방법이라는 내부 인식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입장감을 살리려는 현장 인터뷰가 굳이 익명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KBS 보도국에선 현장성 가치와 제작 관행에 밀려 가이드라인의 익명 제한 규정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익명 허용 원칙과 목적을 벗어나는 다수의 보도 사례는 사실상 엄격하게 작동하는 승인 절차 없이 경험에 따라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익명 대처한 결과로 보인다. 최소에 그친 익명 보도 사례가 스스로 말하듯, BBC 뉴스에선 이 같은 문제가 관찰되지 않았다.

BBC 뉴스와 비교할 때 KBS 뉴스에선 주제에서 사회(41.9%)와 정치(32%)의 상대적 비중이 월등한 내용적 도식과 기자 리포트 의존도가 높고(91%) 기사당 보통 2개의 사운드바이트를 인용하는 형식적 도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오해정·최지향, 2019). 두 방송사의 상이한 조직문화 배경과 취재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는 결과다. 이러한 한국형 TV뉴스의 내용적-형식적 도식이 익명취재원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KBS 뉴스는 사회(43건, 56.6%)와 정치(17건, 22.4%) 주제, 그리고 기자 리포트 포맷(70건, 30%)의 익명 보도 비중이 월등했다. 또 익명취재원의 대다수를 간접인용이 아닌 사운드바이트(91회, 81.3%)로 담았다. 이는, 보도국이 요구하듯, 인터뷰 2개의 기자 리포트를 마감시간에 맞춰 만들고자 주제에 상관없이 재빠르게 취재 섭외를 하려는 ‘편의적 동기’(이윤희·조연하, 2017)에서 익명취재원을 이용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사운드바이트 인터뷰를 포함하는 완성도 높은 리포트를 제작해야 하는 일상의 연속에서 극심한 시간 압박을 받으며 섭외를 하다보면 취재원을 실명으로 카메라 앞에 세울 만큼 충분한 설득시간을 갖기 어려운 것이 취재 현실이다. 사회 기사가 많을 뿐 아니라 일반서민 취재원이 완전익명 처리된 사례가 전체의 절반이 훨씬 넘는(42회, 58.3%) 결과도 이런 제작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사건·사고가 다수를 차지하는 사회 주제의 보도 비중이 높다 보니 일반 시민을 인터뷰할 기회가 많고, 인터뷰 섭외 과정의 이른바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익명 처리를 택한 결과로 보인다. 개인 인격권 보호에 점점 민감해지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익명 취재를 선호한 측면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익명을 대가로 풍부한 내용을 보도하려는 ‘기능적 동기’나 취재원과 좋은 친분관계를 유지하려는 ‘사회적 동기’가 취재 과정에 작용한다는 방송기자들의 증언(이윤희·조연하, 2017)을 실제 기사의 내용분석으로 뒷받침한다. 유난히 KBS 뉴스에서 부분익명 취재원의 분포

가 특정 범주의 지위(중간관리자 60%)와 조직(정부부서 60%, 기업 22%)에 집중됐다. KBS 기자 인터뷰가 밝히듯, 정부조직을 비롯한 출입처 취재원이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리 익명 수위를 임의로 정하고 기자단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국 언론의 취재 현실과 일맥상통한다.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출입처 의존주의, 특히 정부기관과 기업체로 몰리는 취재원 편중(임영호·이현주, 2001)이 도구주의 언론관에 익숙한 정보 제공 권력집단의 익명 보도 양산으로 이어지는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분익명 처리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BBC 뉴스는 사회 권력집단의 익명 처리 자체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사회적 동기’와 연관된 두 공영방송의 익명 취재 규정은 취재원 신변 보호라는 명백한 목적에 국한된다. 그런데 KBS 뉴스에선 익명 취재의 사회적 동기가 원래 취지를 벗어나 취재 편의주의와 결합하고, 출입처 취재원과 기자의 ‘사적인 친분관계 유지’(박동숙·조연하·홍주현, 2001)로까지 확장된다. 관공서와 기업 위주인 출입처 중심의 취재 현장에선 가이드라인 규정이 함축하는 사회적 동기의 의미가 변질되면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적당한 선에서 투명성을 포기하고 익명 보도를 거래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시청자의 알 권리만 박탈당한다는 우려를 낳는다.

KBS는 오프 더 레코드 정황의 정보를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표현을 통해 익명으로 다룰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에서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관행적 표현을 동원한 KBS 기사의 주제는 정치(21건, 65.6%)에 집중됐다. 그러나 취재원 없는 심층·배경 표현의 가이드라인 명문화는 정보출처의 신빙성은 물론 설명과 주장의 주체를 알 길이 없다는 점에서 그 정보가 믿을만하고 타당한지 시청자가 확인하기 곤란한 문제를 제기한다. 익명 형식을 가장해 기자의 주관적, 정치적 견해를 담아내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김옥조, 2004; 이준웅·김경모, 2008). 유사 규정이 없는 BBC 뉴스에선 이 같은 표현의 기사가 단 2건에 그쳤다는 사실이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의 유지에 시사하는 바 크다. 취재원 미상의 심층·배경 표현은 엄격한 제한도 없고 용도도 불명확한 편의적 규정에 가까워 오·남용 소지가 다분한 익명 관행이라는 것이다. 기사 말미에 한 두 문장으로 담아내는 익명의 배경 정보가 얼마나 ‘심층적’일지는 또 다른 문제다.

한편, KBS와 BBC 모두 익명 보도 사유를 기사에서 투명하게 밝히는 관행의 실천력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짧은 길이의 기사 리포트 포맷 때문에 기사 안의 문장으로 소화하기 어렵다면 자막을 이용해서라도 익명 처리 이유를 설명하는 기술적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한(Boeyink, 1990; Esposito, 1999; Gladney et al., 2013) 이런 노력은 익명 보도를 자제하려는 조직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취재원 이용의 투명성을 높여 시청자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KBS 뉴스에서 취재원 신원을 가리기 위해 자료화면을 사용하면서 음성변조하거나(49회, 53.8%)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혼용한(16회, 17%) 편집기법이 빈번하게 동원된 패턴도 관찰됐다. 가이드라인에 없는 음성변조 처리가 익명 사운드바이트에서 특히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총 78회, 85.7%). 영상/음성 편집이 7회에 그친 BBC 뉴스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음성의 익명 처리에 대해 BBC 규정은 더빙을 권장한다. 분석 기사에서 음성변조는 한 차례도 없었다. KBS 기자 인터뷰에 따르면, 과도한 영상/음성 편집을 염려하는 보도국 내부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KBS 뉴스의 과도한 음성변조는 뚜렷한 규정이 없다보니 익명 처리를 할 때마다 별 주의 없이 남용한 관행의 결과로 보인다. 반면, BBC 뉴스에선 품질에 지장 없도록 영상/음성 편집을 단순하게 처리하라는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졌다.

슈메이커와 리스의 영향요인 위계 모형(Shoemaker & Reese, 1996)에 따르면, 기자 개인에서 이데올로기까지 미시에서 거시를 아우르는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며 뉴스 생산물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비교 분석에서 보듯, KBS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은 과도한 출입처 의존성과 취재 편의주의, 익명 취재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상실, 한국형 방송뉴스에 고착된 내용적·형식적 도식, 시청률에 연연해 익명 보도의 폐해를 경시하는 조직 분위기 같은 방송언론계의 고질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제작 관행과 미디어 조직 차원의 요인이 익명 취재의 편의적 동기와 연동하며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KBS 뉴스만 분석했지만 이 같은 실상은 한국 방송뉴스 전반의 익명 보도를 관통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내용분석이 보여주는 BBC 뉴스의 실명 원칙 준수와 실천은 이와 대조적이다. 익명 취재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소속 기자가 숙지하도록 철저히 훈련시키고, 익명취재원 이용을 최소화하려는 내부 분위기와 제작 관행이 조직 차원에서 정착돼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온라인(모바일) 뉴스 유통은 활발하지만 품질 좋고 다양한 정보는 감소하고 콘텐츠도 양극화·파편화하고 있다(Van Aelst et al., 2017). 설문조사 결과 ‘가짜뉴스’보다 ‘언론사 오보’가 더 유해하다는 응답이 높을 정도로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이 심각하다(김위근, 2018).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비교조사는 한국이 조사대상 37개국 가운데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드러낸다(김위근 등, 2018). 이처럼 낮은 언론 신뢰도와 기사의 저(低)품질 문제를 모두 뉴스의 익명취재원 오·남용으로 책임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PEJ 지수 분석이 보여주듯 취재원의 투명성 확보가 기사 품질 개선과 신뢰도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좋은저널리즘연구회, 2018). TV뉴스의 전범으로서 공영방송 뉴스에 기대하는 바기도 하다.

이 연구는 공영방송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실태를 검토함으로써 방송뉴스의 품질 문제에 접근하고자 했다. 그러나 KBS 뉴스의 분석에 그쳐 일반화의 한계를 안고 있다. 내용분석 결과

를 해석하면서 KBS 기자 1명의 증언만 반영한 문제도 있다. BBC 뉴스의 익명취재원 사례 자체가 적어 체계적인 질적 비교가 어려웠던 약점도 드러난다. 다만 기존연구가 간과했던 TV뉴스의 익명 보도 실상을 실제 기사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그 조건과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방송저널리즘 현장의 획기적인 관행 개선을 요청하는 의미가 있다. 후속연구는 방송사와 뉴스 프로그램을 늘리고 방송사 나름의 조직문화와 취재 관행이 자사 가이드라인의 실천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특유의 익명 보도를 유인하는지 체계적인 연관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Aalberg, T., Aelst, P., & Curran, J. (2010). Media systems and the political information environment: A cross-national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5(3), 255-271.
- Bae, J. A. (2008). A study on the format trade in broadcasting industry. *Broadcasting & Communication*, 9(2), 6-36.
- BBC (2020). *Editorial guideline*. Retrieved 01/17/20 from <https://www.bbc.co.uk/editorialguidelines/>
- Benoit, W. L., & Strathman, A. (2004). Source credibility and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In R. Glass & Seiter (Eds.), *Readings in persuasion, social influence, and compliance gaining* (pp. 95-111). Boston: Pearson.
- Blankenburg, W. B. (1992). The utility of anonymous attribution. *Newspaper Research Journal*, 13(1-2), 10-23.
- Boeyink, E. (1990). Anonymous sources in news stories: Justifying exceptions and limiting abuse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5(4), 233-246.
- Burkhalter, S., Gastil, J., & Kelshaw, T. (2002). A conceptual definition and theoretical model of public deliberation in small face-to-face groups. *Communication Theory*, 12, 398-422.
- Chancellor, J. W., & Mears, W. R. (1995). *The new news business*.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 Chadha, K., & Koliska, M. (2015). Newsrooms and transparency in the digital age. *Journalism Practice*, 9(2), 215-229.
- Chung, S., Fink, E., & Kaplowitz, S. (2008). The comparative statics and dynamics of beliefs: The effect of message discrepancy and source credibility. *Communication Monographs*, 75(2), 158-189.
- Corner, J. (1995). *Television form and public address*. London: Edward Arnold.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the public sphere*. London: Sage.
- Druckman, J. N. (2014). Pathologies of studying public opinion, political communication, and democratic responsiveness. *Political Communication*, 31, 467-492.
- Duffy, J. (2014). Anonymous sources: A historical review of the norms surrounding their use. *American Journalism*, 31(2), 236-261.
- Esposito, S. A. (1999). Anonymous white house sources: How they helped shape television news coverage of the Bill Clinton-Monica Lewinsky Investigation. *Communication and the Law*, 21(3), 1.
- Gladney, G. A., Shapiro, I., & Ray, R. (2013). Reasons for veiled sources spike after 2004 scandal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4(2), 36-49.

Hage, G. S., Dennis, E. E., Ismach, A. H., & Hartgen, S. (1976). *New strategies for public affairs reporting*.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Han, S. Y., & Youn, S. M. (2016). Competition and changes in Korean broadcast journalism: Examinat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TV networks main news program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0(1), 169-210.

Hong, Y. (2015). A study of anonymous sources : Focusing on the front-page stories of the Chosun Ilbo.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Im, Y.-H., & Lee, H.-J. (2001). Use of information sources in a Korean daily newspaper: A content analysis of Dongailbo, 1949-1999.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1(1), 300-330.

Jang, H., & Oh, S. (2001). A study on the use of sources of Korean and U.S. newspapers. *A News Review*, 7, 9-49.

Joe, D., & Yong, S. (2006). 42 percent of the sources remaining anonymous. *News and Broadcasting*, Feb, 8-18.

Karlsson, M. (2011). The immediacy of online news, the visibility of journalistic processes and a restructuring of journalistic authority. *Journalism*, 12(3), 279-295.

KBS (2016). *KBS editorial guideline*. Seoul: KBS.

Kim, K. (2003). Coverage routines of gender reproduction in television news and journalists' gender difference: A content analysis of the prime-time evening news in KBS, MBC, & SB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7(3), 197-238.

Kim, O. (2004). *Media ethics*. Seoul: Communication Books.

Kim, W.-G. (2018). The survey about press credibility in Korea. *Media Issue*, 4(3), 1-12.

Kim, W.-G., Ahn, S.-C., & Baek, Y. M. (2018). *Press credibility in Korea: Diagnosis and prescription*.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Kim, Y. (1997). News sources of political reporting in the Korean press: A historical analysis 1955-1995. Master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Kim, Y. (2006). Reliability is important: Expressions are specific. *Newspaper & Broadcasting*, 422, 28-31.

Koh, H., & Lee, G. (2010). An analysis of the sources of Korean newspapers' scientific reports: The Chosun Ilbo and Hankyoreh Shinmun for their scientific articles on U.S. beef imports. *Social Science Research Conference*, 24, 29-73.

- Kovach, B., & Rosenstiel, T. (2001). *The elements of journalism*. New York: Crown.
- Lasorsa, D. L., & Reese S. D. (1990). News source use in the crash of 1987: A study of four national media. *Journalism Quarterly*, 67, 60-71.
- Lasorsa, D. L. (2012). Transparency and other journalistic norms on twitter: The role of gender. *Journalism Studies*, 13(3), 402-417.
- Lasorsa, D. L., Lewis, S. C., & Holton, A. E. (2012). Normalizing twitter: Journalism practice in an emerging communication space. *Journalism Studies*, 13(1), 19-36.
- Lee, D. (2001). The practice of using media sources and the reliability of articles. *Media Arbitration, summer*, 20-31.
- Lee, J. K., & Kim, J. M. (2000). A study on the practice of using sources of Korean newspaper articles. *Korean Journalism Research*, 2, 160-181.
- Lee, J. K. (2004, July). Korean TV news format and reporting systems: Their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Korean socite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Seoul.
- Lee, Y.-H., & Cho, Y.-H. (2017). A study of perception of TV reporters about anonymous news sources: Focusing on the reporting practice, motivation, effect of the anonymous Sourc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5), 241-273.
- Martin-Kratzer, R., & Thorson, E. (2007). Use of anonymous sources declines in US newspaper. *Newspaper Research Journal*, 28(2), 6-70.
- McNair, B. (1998). *The sociology of journal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errill, J. (1997). *Journalism ethics: Philosophical foundations for news media*. New York: St. Martin's Press.
- Morton, L. (2015). Where are you coming from? Transparency and truth-claims in Dave Cullen's Columbine. *Journalism Practice*, 9(2), 168-183.
- Nam, J. (2006). *Current status and tasks of media ethics in Korea*.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Nielson Korea (2020). Top 20 list for TV programs. Retrieved 02/10/20 from http://www.nielsenmedia.co.kr/tv_terrestrial_day.asp?menu=Tit_1&sub_menu=1_1&area=01
- Oh, H. J., & Choi, J. (2019). Effects of thematic and formal format of public broadcasting news on the depth of new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3(5), 152-189.
- Park, D.-S., Cho, Y.-H., & Hong, J.-H. (2001). A Qualitative study of news source-reporter relations-On the

- problems of beat reporting system.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5, 367-396.
- Park, J.-Y., & Lee, W. (2007). Quotation & attribution :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U.S. newspaper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51(6), 439-468.
- Park, J.-Y., & Lee, W. (2010).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he news evaluation index*. Seoul: Korea Press Foundation.
- Phillips, A. (2010). Transparency and the new ethics of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 4(3), 373-382.
- Price, V., & Neijens, P. (1997). Opinion quality in public opinion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9, 336-360.
- Purvis, H. (2015). Anonymous source: More or less and why and where? *The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30(2), 2-21.
- Rhee, J. W., & Hwang, Y. R. (2004). Thematic and formal characteristics of Korean broadcasting news: Finding the Korean broadcasting news schem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8(3), 232-292.
- Rhee, J. W., & Kim, K. (2008). Textual properties of desirable news: Fairness, validity, and sincerity.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67, 9-44.
- Ryfe, D. M. (2005). Does deliberative democracy work?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8, 49-71.
- Sheehy, M. (2008). Foreign news stories more likely to include unnamed source. *Newspaper Research Journal*, 29(3), 24-37.
- Shin, C. (2013). Necessity and problems of anonymous reporting. *Kwanhun Journal written in Korean*, 127, 93-99.
- Shoemaker, P. J., & Reese, S.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Routledge.
- Sigal, L. V. (1973). *Reporters and officials: The organization and policies of news making*. Lexington, MA: D. C. Heath and Company.
- Singer, J. B. (2007). Contested autonomy. *Journalism Studies*, 8(1), 79-95.
- Song, S. (2016). A study of sourcing patterns in the news coverage of the Ferry Sewol Disas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34-62.
- Spurk, C., Lopata, S., & Keel, G. (2010). Measuring the 'democratic' quality of radio news: Experiences from Liberia. *Journal of African Media Studies*, 2(2), 173-192.
- Sternadori, M. M., & Thorson, E. (2009). Anonymous source harm credibility of all stories. *Newspaper*

Research Journal, 30(4), 54-66.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Van Aelst, P., Strömbäck, J., Aalberg, T., Esser, F., de Vreese, C., Matthes, J., Hopmann, D., Salgado, S., Hubé, N., Stepińska, A., Papathanassopoulos, S., Berganza, R., Legnante, G., Reinemann, C., Sheaffer, T., & Stanyer, J. (2017). Political communication in a high-choice media environment: A challenge for democracy?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41(1), 3-27.

Wulfemeyer, K. (1985). How and why anonymous attribution is used by Time and Newsweek. *Journalism Quarterly*, 62(1), 81-126.

Wulfemeyer, K., & McFadden, L. (1986). Anonymous attribution in network news. *Journalism Quarterly*, 63(3), 468-473.

Yoon, S. (1999). Off the record and press reports. *Kwanhun Journal*, 71, 76-92.

최초 투고일 2019년 8월 9일

게재 확정일 2020년 1월 11일

논문 수정일 2020년 1월 31일

부록

- 고홍석·이건호 (2010). 한국 신문의 과학 보도에 나타난 취재원 분석. <사회과학연구논총>, 24권, 29-73.
- 김경모 (2003). 텔레비전 뉴스의 성 역할구도 재생산 보도관행과 저널리스트의 성차: KBS, MBC, SBS의 저녁종합뉴스 내용분석. <한국방송학보>, 17권 3호, 197-238.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연미 (1997). <한국 신문 정치 기사의 취재원과 취재원 밝히기: 역사적 분석 1955-1995>.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욱 (2006). 신뢰성이 중요, 표현도 구체적이어야. <신문과 방송>, 422호, 28-31.
- 김위근 (2018). 언론 신뢰도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미디어 이슈>, 4권 3호, 1-12.
- 김위근·안수찬·백영민 (2018). <한국의 언론 신뢰도: 진단과 처방>.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남재일 (2006). <한국 언론윤리 현황과 과제>. 서울: 한국언론재단.
- 닐슨 코리아 (2020). 지상파 일일 시청률. Retrieved 02/10/20 from http://www.nielsenmedia.co.kr/tv_terrestrial_day.asp?menu=Tit_1&sub_menu=1_1&area=01
- 박동숙·조연하·홍주현(2001).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사적 친분 고리: 출입처에서 취재원과 기자 의 상호작용에 대한 질적 탐구. <한국언론학보>, 45권 특별호, 367-397.
- 박재영·이원수 (2007). 인용과 취재원 적시에 대한 한미 신문 비교.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439-468.
- 박재영·이원수 (2010). 뉴스평가지수의 개발과 적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정주제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배진아 (2008). 방송시장의 포맷 거래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9권 2호, 6-36.
- 송상근 (2016). 취재원 사용의 원칙과 현실: 세월호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34-62.
- 신창호 (2013). 익명(관계자) 보도 필요성과 문제점. <관훈저널>, 127호, 93-99.
- 오해정·최지향 (2019). 한국 공영방송 TV 뉴스의 형식적, 내용적 도식에 따른 심층성 분석. <한국언론학보>, 63권 5호, 152-189.
- 윤석홍 (1999). 오프 더 레코드와 언론보도. <관훈저널>, 71호, 76-92.
- 이나연 (2018). 과학적 객관주의, 형식적 객관주의, 한국형 형식적 객관주의: 신문 기사에 사용된 취재원 사용과 직접 인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2권 2호, 112-142.

- 이동근 (2001). 언론의 취재원 사용 관행과 기사의 신뢰도. <언론중재>, 여름호, 20-31.
- 이민웅 · 윤영철 · 최영재 · 윤태진 · 김경모 · 이준웅 (2006). <방송저널리즘과 공정성 위기>. 서울: 지식산업사.
- 이영희 · 조연하 (2017). TV뉴스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대한 방송기자의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61권 5호, 241-273.
- 이재경 · 김진미 (2000). 한국 신문기사의 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한국언론학연구>, 2호, 160-181.
- 이재경 (2004, 7월). 한국 TV뉴스 양식과 취재 시스템: 그 특성과 한계.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1-29.
- 이준웅 · 김경모 (2008). 바람직한 뉴스의 구성조건. <방송통신연구>, 67호, 9-44.
- 이준웅 · 황유리 (2004). 한국형 방송 뉴스 도식의 발견. <한국방송학보>, 18권 3호, 232-292.
- 임영호 · 이현주 (2001). 신문기사에 나타난 정보원의 권력 분포: 1949-1999년 <동아일보> 기사의 내용분석. <언론과학연구>, 1권 1호, 300-330.
- 장호순 · 오수정 (2001). 한미 신문의 취재원 이용 관행 연구. <보도비평>, 7호, 9-49.
- 조동시 · 양승혜 (2006). 익명보도 많은 편 80.5%, 취재원의 42%가 익명. <신문과 방송>, 2월호, 8-18.
- 좋은저널리즘연구회 (2018). <기사의 품질: 한국 일간지와 해외 유력지 비교연구>. 서울: 이화여대 출판문화원.
- 한국방송 (2016).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서울: KBS 한국방송.
- 한수연 · 윤석민 (2016). 종합편성채널 출범이 지상파 방송 뉴스에 미친 영향. <한국방송학보>, 30권 1호, 169-210.
- 홍연희 (2015). <한국 신문의 익명취재원 사용 관행 연구: 조선일보 1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공영방송 TV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 KBS <뉴스 9>와 BBC <10시뉴스>의 비교 분석

오해정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박사과정, MBC 기자)

김경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뉴스에서 취재원의 투명성과 적시는 기사의 품질 요건인 신뢰도, 사실성, 전문성 등과 직결된다. 이 연구는 KBS <뉴스 9>에 나타난 익명취재원 이용 실태를 영국 BBC <10시뉴스>와 비교함으로써 기준에 잘 이뤄지지 않았던 한국 방송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 현황에 대해 유형화를 시도했다. 주 구성 표집에 따라 추출한 약 2주 분량의 기사 리포트 329건(KBS 253건, BBC 76건)을 내용 분석한 결과, KBS 뉴스의 익명취재원 이용은 분석대상의 30%(76건)에 달해 BBC 뉴스의 13.2%(10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방송사의 취재보도 가이드라인이 익명취재원 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익명 보도 현실은 큰 차이를 드러냈다. 비교 분석을 통해 KBS는 일반 시민의 완전한 익명 처리가 빈번하고, 사회기사의 익명 취재 비중이 높으며, 취재원의 신원을 가리기 위해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혼용하는 편집기법을 자주 동원하는 특징이 관찰됐다. 특히 익명취재원의 기사 내 역할을 분석한 결과, KBS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현장성을 살리기 위해 익명취재원을 사용하는 특징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심층 인터뷰에 응한 KBS 중견기자에 따르면, 현장성을 중시하는 보도국 분위기 때문에 기자들이 익명으로도 더 많은 취재원을 인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BBC는 익명취재원을 사용한 보도 건수가 10건에 불과해 조직 차원에서 자사 가이드라인을 충실하게 준수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익명취재원 이용을 둘러싼 저널리즘 원칙의 실천이라는 맥락에서 두 방송사의 조직 문화와 취재 관행의 차이가 익명 보도의 질적 차이로 이어질 개연성을 논의했다.

핵심어: TV뉴스, 익명취재원,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취재 관행, 내용분석